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ALEX CROW

가제 : 까마귀 알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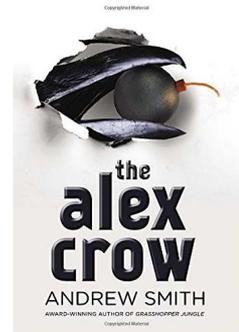
저자 : Andrew Smith

출판사: Dutto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5년 3월 10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이 작품에는 앤드류 스미스의 훌륭함이 녹아있다. 그는 언제나, 그리고 어떻게든 독자의 마음을 뒤집어놓을 방법을 찾아내고 만다.—'New York Times' 도서 리뷰

'2015 뉴욕 공립도서관 우수 청소년도서', '2015 보스턴 글로브 우수 청소년도서' 선정 소설

2014년 『Grasshopper Jungle』로 수많은 상을 거머쥐고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청소년 컬트 소설 작가 앤드류 스미스가 시공간을 넘나드는 세 가지 이야기가 절묘하게 결합되는 특별한 소설로 돌아왔다. 괴상한 소재로 풀어내는 작가 특유의 참신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만나 볼 수 있다.

미국에서 미국인 엄마아빠, 형과 살고 있는 열네 살 에리얼은 중동의 어느 국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내전으로 인해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어느 날, 에리얼이 살던 마을까지 무자비한 공격에 노출된다. 냉장고 안에 몸을 숨긴 에리얼은 숨 죽인 채 바깥에서 친구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하거나, 군인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지옥 같은 순간들이 잠잠해진 후 냉장고에서 나온 에리얼은 마을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홀로 황망히 돌아다니던 에리얼은 다행히 호송대를 만나 목숨을 구하지만, 그마저도 폭탄 공격을 받고 만다. 겨우 살아남은 에리얼은, 도망길에 오른 어떤 가족과 만나서 함께 UN 난민캠프로 갔고, 캠프의 텐트 속에서 지내는 9개월 동안 에리얼은 짧은 인생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다. 그러다 마침내 지금의 양부모를 만나 머나먼 미국으로 떠나오게 된 것이다. 수 차례의 위기 속에서 불사조처럼 살아남은 어린 에리얼은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겨우 며칠 먼저 태어난 형 맥스까지 생긴 에리얼은 어린 나이지만 전쟁의 참화를 오롯이 경험하면서, 그리고 난민으로 살면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을 간직한 채 낯선 환경에 적응해보려

고 애쓴다. 하지만 부모님이 형과 에리얼을 이상한 캠프에 보내면서, 에리얼의 삶은 더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한다. 유전공학자이자 발명가인 두 소년의 아버지는 ‘메리 세이무어 연구단’ 소속으로 ‘알렉스 프로젝트’라는 연구를 맡고 있다. 이 연구단에서 기획한 ‘메리 세이무어 소년 캠프’가 6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부모님은 직원 자녀는 캠프비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고 두 이복 형제가 좀 더 끈끈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에리얼과 맥스도 참가하게 한 것이다.

입양된 난민 소년, 괴상한 소년 캠프, 폭탄을 싣고 달리는 사이코, 로봇 새의 묘한 연결고리

한편, 저 멀리 미국 남부 어느 지역에서는 한 남자가 수은과 수제 폭탄이 가득 실린 차를 몰고 에리얼과 맥스가 있는 캠프장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남자의 이름은 레니.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나타나 레니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도록 설 새 없이 부추긴다. 정신분열과도 같은 증상에 시달리는 레니는 쉬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는다...

캠프에 도착한 두 형제는 휴대전화에만 몰두하느라 현실 세상에서 대인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서 최신 기술의 부작용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진행되는 곤혹스러운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접한다. 사실 맥스와 에리얼은 부모님에게 등 떠밀려 왔을 뿐, 캠프에 참여할 만큼의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적응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치료사’를 자처한 누스바움 부인은 소년들에게 말할 때마다 목소리를 한 옥타브 높여서 말해야 한다며 생기발랄한 모습과 행동을 강요했다. 에리얼과 맥스의 눈에는 코비라는 소년을 제외하곤, 캠프에 온 교사나 참가 학생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였다.

소설은 이 괴상한 소년 캠프에 간 두 소년의 이야기와 레니의 상황과 함께 19세기 북극 탐험에 나섰다가 빙하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선박 ‘알렉스 크로우’호의 이야기도 등장한다. 주변의 모든 것이 얼어붙은 그 북극에서, 탐험대는 이상한 생명체 하나를 발견한다. 에리얼의 양부모가 참여 중인 연구는 먼 옛날 멸종된 생물을 되살려내는 일로, 집안 대대로 전 해 내려오는 로봇 새, ‘알렉스’와 관련이 있다. 말까지 할 줄 아는 이 새가 북극 탐험대의 발견과도 관련이 있을까? 레니라는 남자는 왜 하필 소년 캠프를 공격하려고 할까? 6주 동안이나 울창한 숲 속에 있는 캠프장에서 지내야 하는 에리얼과 맥스는 레니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하나로 모이면서 놀라운 결말을 맞이한다. 여름 캠프, 입양 가족, 광기 어린 테러범, 불법적인 연구 사업, 19세기 탐험대라는 독특한 소재와 충분히 주변에서 만날 법한 괴짜들이 만들어내는 개성 넘치는 이야기 속에 우정과 인간의 잔인함, 갈등이 모두 녹아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앤드류 스미스(Andrew Smith)는 신문사, 라디오 방송사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꿈꾸던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2008년 데뷔 소설 『Ghost Medicine』를 시작으로 『Path of Falling Objects』, 『The Marbury Lens』 등 여러 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제목 : A SONG TO TAKE THE WORLD APART

가제 : 세상을 갈라놓을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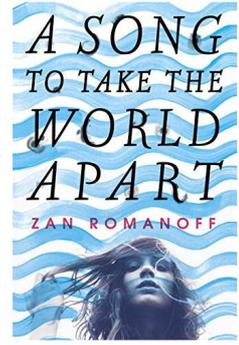
저자 : Zan Romanoff

출판사: Knopf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6년 9월 13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절대로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살아온 소녀, 우연히 알게 된 노래의 파괴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냥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한 소녀가 있다. 열여섯 살,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로렐라이는 크리스를 만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노래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녀, 마법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묘한 능력은 아직 무더웠던 9월의 어느 날, 로렐라이가 친구 조이와 함께 찾아간 콘서트장에서 처음 드러났다. 사실 로렐라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노래에 관련된 건 일체 접하면 안 되고 심지어 노래를 불러서도 안 된다는 희한한 규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교육을 받았다. 할머니는 어린 로렐라이에게 나중에 커서도 절대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고, 집에서는 작게 흥얼거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조이네 집은 로렐라이네 집처럼 이상한 규칙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여자 아이들끼리 복잡한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건 허락하지 않을 만큼 엄격한 건 마찬가지여서, 두 소녀는 거짓말을 하고 콘서트에 가기로 결심했다. 밴드 '더 트러블'의 리드싱어이자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자 선배인 크리스를 만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교 건물에서 교실을 찾느라 헤매던 로렐라이는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복도에서 운명처럼 크리스와 마주쳤다. 그 날 이후, 로렐라이의 머릿속은 크리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인파에 몰려 넘어진 로렐라이의 코 앞에 앉아 있었던 크리스는 한 눈에 봐도 잘생긴 외모에 사랑스러운 곱슬머리, 딱 벌어진 어깨에 잘 어울리는 티셔츠를 입고 무릎에 기타를 얹고 있었다. 로렐라이는 나중에야 조이를 통해서 그가 유명한 밴드의 리드싱어이고 한 학년 위인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위험한 재능,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소녀의 고투
'내가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고들 하지만, 남이 노래하는 걸 듣는 건 괜찮지 않을까?' 로렐라이는 왠지 불안한 마음을 이런 생각으로 달래가며 콘서트장에 울리는 크리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이상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노래하는 그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로렐라이는 목 안에 갇혀 있던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 속에서 빠져 나오려고 꿈

틀대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이 목소리를 얼른 꺼내주고 싶고, 마음껏 노래하고 싶다는 열망이 갑자기 온 몸을 휘저어놓기 시작한다.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결국 참지 못한 로렐라이가 노래를 부르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크리스가 그 노래를 듣고 로렐라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다. 크리스 뿐만이 아니었다. 친구들도, 곁을 지나치는 낯선 사람들까지 로렐라이의 노래를 듣기만 하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일시적인 영향이 아닌, 그들의 삶 전체를 흔들어놓는 강력한 힘이 로렐라이의 목소리에 숨겨져 있었다...

로렐라이는 할머니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놀랍고 무서운 점을 깨닫는다. 목소리의 힘을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로렐라이는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자신만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다. 부모님도 같은 이유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이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로렐라이 자신의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부모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도 저주 받은 능력 때문에 사랑마저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 집안 대대로 여자들이 가지고 태어난 이 이상한 능력, 그 파괴력을 잘 알기에 금기시하고 숨기려고 했던 목소리의 힘이 크리스와 소중한 사람들을 바꾸어놓는 가운데, 로렐라이는 이 굴레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왜 노래를 스스로는 멈출 수 없는지,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찾아내야만 한다.

<저자 소개>

젠 로마노프(Zan Romanoff)는 예일 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LA에 살면서 「Paris Review」, 「Atlantic」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